

2022 국가서비스대상 수상 사례

2022. 09



I|P|S 산업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of Economic Policy Issues

(주)메쉬코리아_부릉

점주들을 위한 프리미엄 배달 대행 서비스
퀵보다 저렴하고 택배보다 빠르게!
빅데이터와 테크 기반의 스마트물류서비스 '부릉'



전통적인 인프라 산업인 물류를 빅데이터와 테크를 기반으로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혁신. 단순 배달 대행이 아닌 생활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퀵보다 저렴하고 택배보다 빠르게'를 모토로 정해진 서비스에 고객을 맞추는 것이 아닌 고객에게 서비스를 맞추는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ackground

(주)메쉬코리아는 여러 대의 단말기를 들고 무작정 콜을 기다리던 배송기사들의 비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로 시작하여 B2B 시장을 타깃으로 라이더들이 다양한 점포의 주문을 묶어 배달할 수 있는 IT 솔루션 '부릉'을 출시하였다. 2017년 유통업계의 온라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을 시작하여, 현재는 배달이라는 라스트마일뿐만 아니라 기업의 물류 IT 구축과 운영 등 B2B 물류 전 영역으로 부릉의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다.

Service Program

부릉은 고객에게 '퀵보다 저렴하고 택배보다 빠르게'를 모토로 정해진 서비스에 고객을 맞추는 단순한 배달대행이 아닌 고객에 서비스를 맞추는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520여 곳의 직영 물류 인프라와 11만명 이상의 배송기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온라인 주문과 동시에 고객사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배송 가능한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와 테크를 기반으로 배송뿐 아니라 재고보관 등 스마트

물류서비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ubject(주체)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재능을 사용하라는 창업자 부친의 당부에 따라 IT 개발자였던 경험을 살려 데이터와 IT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스마트 물류솔루션 개발을 지향한다. 물류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제조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Environment(환경)

10여 년 전 음식배달플랫폼의 출현과 라스트마일 배송혁신이 발생하면서 스마트물류=배달대행으로 인식하는 시각 존재하였으며 실제로 일반 소비자의 경우 배달대행업체들과 스마트 종합 유통물류 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반면, 물류 효율화와 최적화, 비용 생산성을 고민하는 기업고객의 경우 단순 배달 대행과 스마트 종합유통물류를 완전히 구분하여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에 (주)메쉬코리아 '부릉'은 단순 배달 대행에서 벗어나 테크 기반 주

“최근 5년 매출 성장률
연평균 78%...주력 사업
실시간 배송 통해 내년
흑자 전환 속도”



600
현재 기업 고객 수

1,000억 원
누적 투자액

78%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합유통 물류기업, 즉 스마트 물류분야로 가장 먼저 진출하여 현재 600여 개 기업고객이 찾는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esource(자원)

전국 520여 곳의 직영 물류 인프라, 25,000대의 차량, 11만 명 이상의 배송 기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온라인 주문과 동시에 고객사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배송 가능한 스마트물류 실현을 위해 회사 전 직원의 3분의 1이 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있다. AI 기반의 기술 및 시스템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TMS(운송관리시스템) 웨비나와 같이 다양한 테크 중심의 행사를 통해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다.

Mechanism(메커니즘)

차량 및 센터를 모듈화하여 차량 스케줄링, 고객사 물류 통합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최적화 등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류의 디지털화를 통해 인프라 중심산업을 인프라+테크의 차별적 역량으로 물류 문제를 재해석하고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잠재 수요 예측 및 마케팅 결과 예측, 수요 예측을 통한 생산량 및 재고 최적화, 미래 수요 예측을 통한 효율적 차량 및 인력 사전 배치 등 브랜드 수익성과 매출 극대화를 지원함으로써 타 배달플랫폼과 완전한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AI를 기반으로 물류-보관-유통 포장-배송의 전 영역을 윈스톱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erformance(성과)

‘부릉’의 스마트물류 서비스 추진 결과 최근 5년의 매출 성장률은 연평균 78%로 2021년 매출 3,038억을 달성하였다. 현재 600여 곳의 기업고객과 12만 5천여 곳의 지역상점이 부릉을 이용하고 있다. 누적 투자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기업고객 수는 최근 1년 사이 55% 증가하였다. 또한 2019년 기업의 시장성과 성장가능성, 혁신성을 통해 평가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회사의 스마트물류 솔루션에 대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부릉은 설립 10년 동안 물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으며 IT기술과 데이터 접근성 확보로 물류산업의 진화를 이끌었고, 특히 라스트마일 물류 혁신을 통해 e커머스 확산을 증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본격화된 비대면 경제활동시대에 물류와 배송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부릉은 IT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디지털 물류 혁신을 견인해왔다. 향후 ㈜메쉬코리아는 강점인 이륜차 배송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내년 흑자 전환을 위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른 배달대행사와는 달리 메쉬코리아는 전국 520여개 지점을 직영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라스트 마일 구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직접 소유가 가능하다. 아울러 부릉의 강점인 AI와 빅데이터 등 기술을 통한 새로운 정보가치를 창출하고 부릉의 생태계를 구현해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부릉 하나로 유통물류가 선순환되는 산업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